고려의 화가는 수월관음도 속에 무엇을 그려놓았을까?

수월관음의 탄생
강우방 지음
글항아리 펴냄
3만5천원

책은 불화의 하나인 수월관음도 중 가장 완벽한 미학이라고 손꼽히는 일본 다이토쿠(大德寺)사 소장의 고려 수월관음도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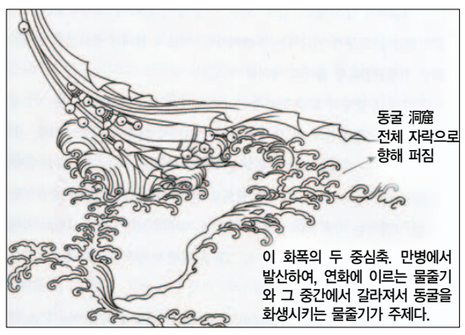
"수월관음도는 조형언어로 지혜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 예술가들은 조형언어로 지혜의 완성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불화는 조형 자체가 진리를 표현해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불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전의 내용을 표현한다거나 교화시키려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 조형언어를 해독하면 문자언어로 쓰인 경전에 기록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언가를 마음 깊이 전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 쓰이지 못한 암호나 기호 같은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책은 요시무라 레이 교수의 연화화생론(蓮花化生論)과 이노우에 다다시 교수의 운기화생론(雲氣化生論)을 포함하고 있는 저자의 영기화생론으로 수월관음도 속에 글려진 영기문의 조형적 해석을 시도했다. 저자의 영기화생론은 생명의 시초인 제1영기싹이 생겨나서 그것이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다시 제2영기싹을 만들어내고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생명의 형태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다.

"고려불화의 조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면상의 복식과 복식에 표현된 공예품에 베풀어진 것들만이 무늬가 아니고, 그 밖의 전체 화면에 펼쳐진 자연과 인체 등 모든 조형이 무늬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무늬가 영기문(靈氣文)이다. 그리고 이렇게 일체에 부여한 영기에서 관음보살이 화생하는 것이어서 '관음보살의 영기화생' 이라는 신비한 탄생의 광경을 보여준다. 일체에 영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영기화, 줄여서 영화라고도 한다. 이 책에서는 기(氣) 대신 영기(靈氣)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 를 굳이 '영기' 라고 부르는 까닭은 기를 조형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용, 봉황, 거북, 기린 등을 사령(四靈)이라고 부르는 데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기란 우주에 충만하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으로, 억지로 설명하자면 서양의 '에너지' 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는 자연과학적인 면과 함께 철학적 · 사상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 우주생성론의 중심 개념을 이루므로 단지 물리적 현상인 것만은 아니다."

불화속 조형언어 해독하면
경전에서 볼 수 없는 것 볼 수 있어
수월관음도에 내재된 놀라운 의문들
새로운 조형해석학 '영기화생론' 으로 풀어

중심에 있는 세 영수의 영물로부터 선재동자에게까지 물결(영기)이 미친다. 물결 모양 영기문이 갈라지며 연잎이 나오고 거기에서 선재동자가 화생한다.



만병에서 연화-관음, 동굴로 향하는 주된 물줄기.

저자는 불화뿐 아니라 일체의 불교 미술이 조형언어로 그려진 또 다른 차원의 경전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화는 교의를 담게 마련이다. 경전이 암송을 통해 그 진의에 닿는 수행의 도구이듯이 불화 또한 감상을 통해 깨달음으로 중생을 인도하는 경전적 속성을 지닌다. 말과 글을 통해 종교적 깨달음을 표현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말로 바꿀 수 없는 깨달음, 언어적 표현 너머에 있는 어떤 진리를 그림을 그려 표현했다. 이번 책에 "하나의 작품은 하나의 경전이다"라는 부제를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다이토쿠사 소장 수월관음도

책에서 저자는 수월관음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옛 화가는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화면의 달빛과 거친 파도, 날리는 백의자락, 관음보살의 발 아래에서 여러 기물을 들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무얼 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다이토쿠 사 소장 고려 수월관음도에 내재된 놀라운 의미들을 발견해 내고 있다.

수월관음도의 도상적인 기원 문제, 수월관음도에 대한 경전을 포함한 여러 문헌의 기록들에 대한 검토 등 역사적 접근에 입각한 연구는 책에서 논하지 않고 있다. 놀랍도록 고차원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순전한 조형 자체의 구조' 를 밝힘으로써, 그림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 에서 '초역사적 보편성' 을 추구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론을 따랐다. 과거의 일반적인 양식 파악과 도상해석학의 방법이 아님은 물론이고 저자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방법론과도 다르다. 새로운 이론에 입각한 '조형해석학' 이다. 작품을 전체의 유기적 관계에서 파악함은 물론 미시적 관찰을 통해 그 세계에 숨겨진 조형의 구조와 그 구조 자체에 내재하는 상징을 밝히려 한 것이다. 조형의 이러한 성립과정을 단계적으로 밝히는 작업에서 중요한 것이 '채색분석법' 인데, 책에서는 그 여러 단계를 도판을 통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중도와 연기 깨달으면 매일 평화·행복

고우스님 강설 육조단경

고우 스님 지음 | 박희승 엮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2만8천원

고우 스님〈사진〉의 〈육조단경〉 강의가 책으로 나왔다. 〈육조단경〉은 선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텍스트로 육조 혜능 대사(638~713)의 법문집이다.

혜능 대사의 가르침은 대승불교의 핵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육조단경〉은 이러한 육조 혜능 대사의 법문을 후대에 책으로 엮은 것인데, 부처님 제자의 어록 가운데 유일하게 '경(經)' 자가 붙는다. 선종의 종지(宗旨)가 담겨 있어 선 수행의 지침서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 혜능 대사는 부처님 이래 33대 조사이며, 인도에서 온 달마대사에서 시작된 중국 선불교의 육조이다. 선종사상의 정립자라 할 수 있는데, 〈육조단경〉에 그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혜능 대사의 열반 1300주기(718. 음 8.3)를 맞아 출간된 책은 고우 스님이 2004~2005년 스님과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강의를 묶은 것으로, 고우 스님이 선의 생활화를 기치로 혜능 대사의 중도와 돈오 사상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하고자 출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철 스님이 돈황본을 구해 처음 번역하고 소개했는데, 제자들에게 책을 권하지 않았던 성철 스님도 〈육조단경〉만은 권했을 만큼 선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원전이다.

〈육조단경〉 '힐링', '웰빙' 보다 근원적
누구나 '선'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

"혜능 대사가 설한 이 중도와 연기를 깨닫게 되면 매일매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물론 세상 어디에나 갈등하고 싸우는 일은 있다. 사회와 가정은 물론이고 더 축소해보면 개인도 자기 내면에서 갈등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육조단경〉에 있다. 이것을 〈육조단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육조단경〉은 인류의 행복지침서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무한히 행복하게 해준다. 여기에 육조단경의 가치가 있다."

혜능 대사가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한 말씀을 모아 놓은 것이 단경이다. 〈육조단경〉은 종교, 인종, 이데올로기, 민족,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중도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 놓은 것이다.

저자 고우 스님은 〈육조단경〉을 종교를 초월하여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고우 스님은 이 단경이 인류의 행복지침서라고 평가한다.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한 부처님이나 나무꾼으로 출가한 혜능 대사나 모두 깨달아 영원한 행복을 이뤘는데, 그분들의 깨달음이 바로 중도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우 스님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육조단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근래 힐링이나 웰빙 붐보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존재 원리를 중도로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혜능 대사의 육조단경을 쉽게 설명하려 한다. 선은 본래 '평상심이 도(道)' 라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를 어렵게만 여기기에 최대한 쉽게 풀어 선과 불교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저자 고우 스님은 선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선과 불교를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으며, 책을 통해 '중도 정견' 과 '일상생활에서 행복 찾기' 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우 스님 강설 육조단경〉은 성철 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 원문 번역에 따라 33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강의하고 있다. 〈육조단경〉에는 여러 본이 전하는데 그 가운데 이 돈황본은 천여 년 동안 돈황굴에 비장되어 있다 발견된 최고본인 까닭에 유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첨삭이 없어 가장 정통한 육조단경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우 스님 강설 육조단경〉은 각 장마다 번역문과 한자 원문을 앞에 배치하고 그 뒤에 원문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8 ~ 9/3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육조단경 (고우 스님 강설)	고우	조계종출판사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이 길의 끝에서 자유에 이르기를	원택	조계종출판사
7	우리 모두는 부처다	종사은 잠앙 켄체	팡세
8	이것이 간화선이다	무비	민족사
9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너울북
10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남궁선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